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폭력 사건 가해자 어지(차라)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결정한 징계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서약했습니다. 아래의 사과문 공개는 서약서 5항 '어지(차라)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상담소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를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상담소 홈페이지 및 상담소 회원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 메일링 등에 공개할 수 있다.'에 따른 것입니다.

※ 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은 생략합니다.

※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A, B, C, D의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과문

작성: 2012년 9월 17일, 어지(차라)

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 생략.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

사과문을 시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상담소에 활동가를 하고 싶다고 메일로 문의 드렸던 날 제가 받았던 따뜻하고 치유되는 메일, 상담소에 처음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2010년 겨울,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상담소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되돌아봅니다. 타 단체에서도 그리 좋은 방식으로 활동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으로 힘들어했던 몇 년 간의 시간을 거치고 어렵게 결정내린 상담소에서의 활동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저의 무책임하고 당혹스러운 행적으로 인해 마감된 것에 대해 제 스스로가 느끼는 책임감이 큼니다.

우선, 상담소 회원 4명에게 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심의 표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주셨고, 두 번째 피해자는 사석에서 제가 했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셨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제가 행했던 명백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네 번째 피해자는 (생략.) 인해 크나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네 번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제가 저의 잘못과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1년 반 동안 상담소 활동가로 자처하며 활동했습니다. 이 같은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드립니다.

레즈비언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로서 견지해야 했던 윤리, 행동 방침에 대해 무게 있게 느끼며 행동하지 못한 저로 인해 상담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저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하셨을 지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들의 안식처와 버팀목으로 오랜 기간 소중한 공간이 되어주었던 상담소를 저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담소의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여 회원들을 대했고, 회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과 성폭력이란 가해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저는 상담소의 회원으로서 상담소의 활동가로서, 상담소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못한 행동,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점에 대해 저는 깊숙하고 비통스러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 이번 사건을 마주하고 저의 행동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비단 제가 상담소에서 벌인 행동 뿐 아니라 저의 지난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주의 활동가로 자임하고,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였으며, 성소수자 활동가로 자처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저를 가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제가 고질적으로 겪었던 패턴, 즉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을 스킨십 등으로 먼저 시도해 왔던 저의 방식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미성숙한 방식이 타인을 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빈번하게 결과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이번 저의 사건이 상담소 내부에 공개되고 드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짧지 않은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저와 얼굴을 마주하며 활동했던 수많은 활동가와 회원 분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가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언행으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저를 동료 활동가로 함께 하기 위해 기울였던 상담소 분들의 노력들, 사려 깊은 배려, 따스한 마음과 자애로운 인내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견과 혐오가 깃든 힘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레즈비언들이 상담소를 통해 얼마나 깊은 위로와 위안을 받아 왔는지 곁에서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제가 만나보았던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바르게 레즈비언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철저하게 레즈비언 당사자들의 경험과 입장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단체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레즈비언들이더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정말 오랫동안 따스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 이후로 제가 인권 활동가로서 얼마나 자질이 부족했고 부적격인 사람인지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며 향후 몇 년간 자숙하며 모든 활동을 멈추고 제 자신을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채워나가도록 담금질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동안 저의 수많은 불찰과 잘못된 행동에도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준 상담소 많은 분들께 다시금 죄송스런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표합니다.

상담소에서의 배운 많은 지혜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가 깨닫게 된 교훈을 지침 삼아 앞으로의 삶에서는 조금 더 많은 레즈비언들과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상황에서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제 삶의 작고 큰 부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비상대책위원회 및 상담소 활동가 분들께 특히 더 감사드리고 죄송하며 또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부족한 사과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